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6월 29일 · 제363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

Contents

| 글로벌 물류이슈 |

1. DHL의 '물류동향 레이더(Logistics Trend Radar) 2016'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일본 물류회사, 신선식품 혼재를 통해 저렴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
2. DHL, 물류센터에서 스마트 로봇 테스트 실시
3. 모듈 운송선의 잇단 투입으로 북극해 아말 LNG 개발 및 운송 활성화 전망
4. 월마트, 모빌함 유통센터 개발로 걸프지역 해상 운송 전략 확대

| 물류시장동향 |

1. 중국 · 파키스탄 국제물류복합단지 프로젝트 착공
2. 바니노 자유항 2021년까지 400억 루블 규모의 투자 이끌 계획

| 공지사항 |

1.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





글로벌 물류이슈

DHL의 '물류동향 레이더(Logistics Trend Radar) 2016'

- 미래사회 비즈니스의 동향과 물류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최신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해 기술함
- 작년 보고서에 비해 올해 물류 트렌드 보고서에 비즈니스 부문에 새롭게 소개되거나 보완된 주요 내용은 8개 요소이며, 작년 보고서와 비교시 제외된 트렌드는 5개 요소임
 - 배치사이즈원(Batch Size One), 온디맨드 배송(On-Demand), 스마트 에너지 물류(Smart Energy Logistics), 튜브 물류(Tube Logistics) 등이 있으며, 기술적 부문에서는 생체공학적 증강(Bionic Enhancement), 디지털 식별자(Digital Identifiers), 무인항공기 및 자율주행 차량(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elf Driving Vehicles) 등임
 - 제외된 물류 트렌드로는 니쇼어링, 실시간 서비스, 도시물류, 가상화폐와 지불, 위치인식과 관련 기술 등이 있음
 - 물류 트렌드에 제외된 요소 중 10년 이내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상화폐를 제외하면 물류부 문에서 새로운 개념에 포함되어 함께 고려되거나, 이미 현실화되어 더 이상의 트렌드로 간주하 기 어려운 요소들임





- **보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**
 - 공급사슬에서의 IT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관련 리스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보안 리스크는 클라우드 물류 등과 같은 새로운 IT기반 물류기술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
- **새로운 에너지 생성 및 신에너지 사용 확대**
 - 2015년 ‘파리협약’ 채택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노력은 물류산업에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이며,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의 운송 및 물류시스템으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
- **물류산업의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빨라지고 있음**
 - 대부분의 우정사업이 이메일과 온라인 통신으로 대체되고 있으며, 이러한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는 물류의 디지털화를 예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
 - 디지털화가 물리적인 제품에 대한 운송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, 3D 프린터, 빅데이터 분석, IoT, 자가학습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들은 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
 - 따라서 물류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
- **민감한 물품과 냉장유통 제품의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**
 - 선도기업들은 표준화된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직접 냉장유통 배송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슈퍼마켓에 비해 더욱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음
 - 독일회사 Die Bauerntute는 농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, DHL의 재사용 온도조절 박스를 이용하여 하루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
- **De-Stressing the Supply Chain**
 - 복잡한 공급사슬과 쉽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로 인해 운송 모델과 서비스의 적절한 혼합이 요구됨
 - ‘일(Day)’단위로 공급사슬 전체 또는 일부를 전략적으로 늦추는 것은 공급사슬의 최적 균형을 유지하고 저장 및 창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줌
- **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물류운영을 기반으로,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상생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**
 - 소비자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, 순환경제창출을 위해 역물류¹⁾와 같은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야할 것임
 - 물류 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증대 및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함
 - 2013년에 설립된 ‘Fair phone’은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를 공정하게 제공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, 지금까지 약 60,000개를 생산 및 판매 중임

1) 폐기물의 관리, 처리를 위한 기술 및 제반 활동(절감, 재사용, 재활용, 대체)에 관련된 물류임



물류 미래 동향 내용의 기간, 중요도 및 관련 산업 요약

구분	기간 /중요도	Automotive	Engineering & Manufacturing	Technology	Energy	Life Sciences & Healthcare	Retail & Consumer
예측물류 (Anticipatory Logistics)	5년 이내 / 높음	✓	✓	✓	✓		✓
배치사이즈원 (Batch Size one)	5년 이상 / 중간	✓	✓	✓		✓	✓
편의물류 (Convenience logistics)	5년 이내 / 중간					✓	✓
공급사슬내 스트레스 감소 (De-Stressing The Supply Chain)	5년 이내 / 중간	✓	✓	✓			
공정 및 책임물류 (Fair & Responsible logistics)	5년 이내 / 중간	✓	✓	✓	✓	✓	✓
고령화 사회 물류 (Grey Power Logistics)	5년 이상 / 중간					✓	✓
물류 마켓 플레이스 (Logistics Marketplaces)	5년 이상 / 높음	✓	✓	✓	✓	✓	✓
다목적 네트워크 (Multi-purpose Networks)	5년 이내 / 낮음		✓		✓	✓	✓
옴니채널 물류 (Omni-Channel logistics)	5년 이내 / 높음	✓		✓		✓	✓
온디맨드 배송 (On-demand Delivery)	5년 이내 / 높음	✓		✓			✓
공유경제 물류 (Shareconomy Logistics)	5년 이내 / 중간	✓	✓	✓	✓	✓	✓
스마트 에너지 물류 (Smart Energy Logistics)	5년 이내 / 중간	✓			✓		
슈퍼그리드 물류 (Supergrid Logistics)	5년 이상 / 높음	✓	✓	✓	✓		✓
튜브 물류 (Tube Logistics)	5년 이상 / 낮음						✓
3D 프린팅 (3D Printing)	5년 이상 / 높음	✓	✓	✓	✓	✓	✓
증강현실 (Augmented Reality)	5년 이내 / 중간	✓	✓	✓	✓	✓	✓
빅데이터(Big Data)	5년 이내 / 높음	✓	✓	✓	✓	✓	✓
생체공학 증강 (Bionic Enhancement)	5년 이상 / 중간	✓					✓
클라우드 물류 (Cloud logistics)	5년 이내 / 높음	✓	✓	✓	✓	✓	✓
디지털 식별자 (Digital Identifiers)	5년 이상 / 낮음	✓				✓	
사물 인터넷 (Internet of things)	5년 이내 / 높음	✓	✓	✓	✓	✓	✓
저비용 센서기술 (Low-cost Sensor Technology)	5년 이내 / 중간	✓	✓	✓	✓	✓	✓
로보틱스 및 자동화 (Robotic & Automation)	5년 이내 / 높음	✓	✓	✓		✓	✓
자율주행차 (Self-Driving Vehicles)	5년 이상 / 높음	✓	✓	✓	✓	✓	✓
자가학습 시스템 (Self-learning Systems)	5년 이상 / 중간	✓	✓				✓
무인항공기 (Unmanned Aerial Vehicles)	5년 이상 / 중간	✓	✓		✓	✓	✓

자료 : DHL Logistics Trend Radar 2016



-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응급&복지 서비스, 노동인력 고령화, 실버 서퍼(Silver Surfer)의 증가 등이 나타날 것임
 - 노인, 환자, 장애인 수송, 웨어러블 기기 및 스마트 홈 인프라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편의 물품 및 의료용품의 운송이 확대될 것임
 - 고령 인구에 초점을 둔 전자상거래가 추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물동량이 늘어나고 고객의 일상 또는 실시간 요구에 따른 맞춤형 배송이 증가함
- 물류 마켓플레이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
 - 원스탑 B2B 물류 플랫폼은 기업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운송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
 - M2C(Manufacturer-to-Consumer)와 B2C 물류 마켓은 저렴하고, 신뢰도가 높으며,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배송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짐
 - 소비자들이 직접 견적을 비교하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거나, 작은 업체부터 초대형 화물 운송업체에 이르는 다양한 물류 제공 업체들로부터 입찰을 받을 수 있게 됨
- 다목적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수송 기법, 스마트 포장 솔루션, 실시간 공급사슬 모니터링을 통해 온도민감물품, 특수물품, 위험물품 등을 수송, 저장하는데 기존 표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함
 - 특수한 운송 및 보관조건이 요구되는 물품이나 위험 물품은 특수 네트워크 역량을 필요로 하지만 표준 네트워크 공급업체들이 온도 민감형 운송 및 취급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강화 중임
 - 독일의 Postbus는 승객들을 태우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B2B, B2C 소형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

다목적 네트워크 기반 물류서비스-Postbus

Combining Passenger and Parcel Transport – Postbus



자료 : DHL Logistics Trend Radar 2016



-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의 구분이 어려운 옴니채널 물류의 활성화
 - 오프라인 상점과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, 이에 따른 창고 보관, 고객주문처리, 운송 등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날 것임
 - 'Anytime, anywhere' 배송 모델이 활성화되며,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- 실시간 라우팅 및 앱기반 분석을 기반으로한 온-디멘드 배송이 발전됨
 - 기존 '클라우드 물류'에 상응하는 개념이며, 대중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배송이 가능하게 됨
 - 우버는 우버러시(UberRush)라는 당일배송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, 시카고, 뉴욕 등 미국 주요도시에서 작년년부터 시작함
 - 우버러시의 주요 운송수단은 차와 자전거이며, 가격은 5~7달러 정도임



자료 : DHL Logistics Trend Radar 2016

- 물류의 수요를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공유경제 물류가 나타날 것임
 - 물품을 소유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,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공유경제라 하며,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물류에 대한 수요를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공유경제 물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
 - 플랫폼을 공유하는 업체들은 고객 수요를 공유하여, 픽업, 포장, 운송뿐만 아니라 반품 등의 서비스를 대량 주문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음



- **지속가능한 저탄소형 물류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짐**
 -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됨
- **도심 내 혹은 도시간의 빠른 화물 운송이 튜브 물류를 통해 가능해 짐**
 - 튜브 물류란 튜브기차의 일종이자 테슬라모터스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가 구상한 개념인 하이퍼루프로부터 시작된 물류를 의미함
 - 이상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하며, 튜브 물류가 현실화 될 경우에는 도심 내, 도시간의 빠른 화물 운송이 가능해 짐

자료 : DHL Trend Research Trend Radar

이건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김주혜 연구원
051-797-4779, mkkim421@kmi.re.kr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일본 물류회사, 신선식품 혼재를 통해 저렴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

- 일본 거대 물류회사로는 처음으로 일본통운(Nippon Express)사와 유센로지스틱스(Yusen Logistics)사가 아시아 내 냉장컨테이너 해상운송 공유 서비스를 시작함
 - 일본통운사와 유센로지스틱스사는 소형 화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선식품을 아시아 각지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나의 냉장컨테이너를 여러 화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
- 두회사는 나고야항과 대만 북부의 항만도시인 Keelung항 간 정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 - 신선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중부일본에서 생산된 사케도 섭씨 5℃로 유지되는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주 1회 해상운송될 예정임
 - 두 회사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자란 신선화물도 포함시켜 운송 제품 종류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홍콩까지 운송지역 확장 등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
- 소형 수출 화주들은 단독으로 20ft 컨테이너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격이 비싸더라도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경제적 선택이었음
- 그런데, 일본통운사와 유센로지스틱스사는 냉장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임대해서 여러 화주들로부터 신선화물을 콘솔(Consolidation)하여 해상운송함으로써 항공운송보다 비용이 최대 80%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
 - 현재 일본통운사와 유센로지스틱스사는 냉장컨테이너에 신선화물을 콘솔할 화주들을 탐색하고 있음
-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화물 입고, 분류, 통관을 위한 창고 업무도 일본에서는 일본통운사가 대만에서는 유센로지스틱스사가 각자 분담하여 책임 운영할 예정임
- 또한 두 회사는 일본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과 야채, 사케 등을 포함한 일본음식에 대한 아시아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신선식품을 수송하는 더 값싼 방법을 탐색·적용함으로써 일본 음식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자료 : www.asia.nikkei.com, 2016.6.17. / www.freshplaza.com, 2016.6.20.

이연경 전문연구원

051-797-4682, eklee@kmi.re.kr



DHL, 물류센터에서 스마트 로봇 테스트 실시

- DHL이 현재 스마트 로봇인 Baxter와 Sawyer*를 물류센터에서 조립, 포장 및 pre-retailing service** 등 협업 및 부가가치 업무에 투입하는 테스트를 실시 중임

* Baxter와 Sawyer는 리싱크 로보틱스(Rethink Robotics)사에서 개발한 로봇으로,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안전망을 필요로 하고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반면, 격리된 곳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. Baxter는 양팔 로봇이며, Sawyer는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한팔 로봇임

** 즉각 판매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보관하는 DHL의 서비스임

- DHL의 관계자는 오늘날 물류시설의 80%가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함
 -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가변성(variability)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, 물류산업에서는 적용이 어려웠으나,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류산업에서도 협업이 가능한 스마트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음
- DHL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운영 사이트에 여러 대의 Baxter와 Sawyer를 통합하는 방안을 테스트 중임
 -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추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리퍼(gripper, 물건을 쥐는 로봇의 말단 부위)를 3D 프린팅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짐
- DHL의 또 다른 관계자는 Sawyer의 등장이 자동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와 구분을 바꾸고 있다고 하였음



자료 : www.dpdhl.com

자료 : DHL 보도자료, 2016.6.21.

송주미 전문연구원
051-797-4773, jmsong@kmi.re.kr



모듈 운송선의 잇단 투입으로 북극해 야말 LNG 개발 및 운송 활성화 전망

- 신개념의 극지 자원 개발 특수선인 모듈 캐리어(Module Carrier)가 극지 에너지 물류 전문 선사인 빅롤에 인도되어 북극해 야말 LNG 개발에 투입될 예정임
 - 화물 운송 전문 웹사이트인 World Cargo News는 최근 코스코 다렌 조선소에서 건조된 제2의 모듈²⁾ 운송선(MC Class)인 빅롤 베링호가 빅롤사측에 인도되었다고 보도함
 - 모듈 운송선은 북극해 등 극지 해역의 대규모 자원개발을 위한 모듈과 장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핀란드 및 스웨덴 당국이 지정한 1A Ice Class(얼음두께 1m)의 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함
 - * 갑판은 완전한 동일 평면형으로 철제 빔 등을 적하역 할 수 있으며, 전장 173m, 폭 42m, 밸러스트 능력은 시간당 12,000m³로 특히 밸러스트 능력이 탁월해 적하역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고, 2만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시속 13 노트로 항해할 수 있음
 - * 아울러 모듈 운송선은 영하 55도의 혹한 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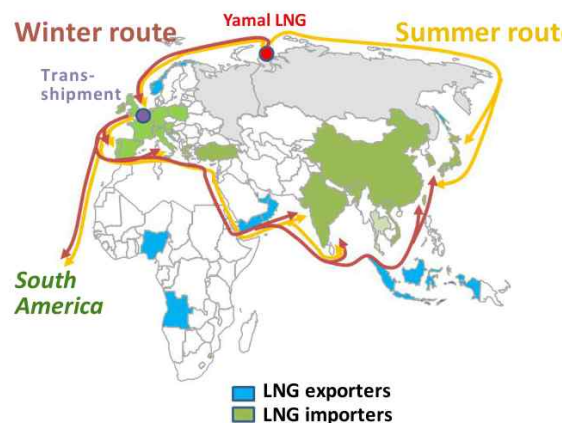
빅롤의 모듈 캐리어



자료 : www.bigrollshipping.com

야말 LNG 해상운송 루트

Yamal LNG shipping options



자료 : www.eco-r.eu

- 빅롤 베링호는 동급의 모듈 캐리어로는 두 번째 건조된 선박으로 빅롤측은 북극해 가스개발 회사인 Yamagaz와 장기 계약을 맺고 동 선박을 곧 야말 가스 개발현장에 투입할 계획임
 - 최초의 모듈 캐리어 빅롤 바렌츠호는 지난 4월 건조되어 처녀 항해를 완료함
 - 즉 중국에서 조립된 LNG 모듈을 야말 가스프로젝트 현장에 인접한 러시아 북극해 연안의 사베타항으로 운송한 바 있음

2) 모듈(module)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일부로, 전체 시스템 또는 체계 중 다른 구성 요소들과는 독립된 하나의 구성 요소를 지칭하며, LNG 개발 분야에서는 가스관과 철제 지지대로 구성된 탐사 또는 시추 장치 등을 뜻하며 대형 프로젝트 화물에 속함



- 빅롤 베링호가 투입될 러시아 야말반도 일대의 북극해는 연간 7~9개월 결빙이 되며 연간 3개월 해가 뜨지 않는 혹한 수역임
- 야말반도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해 자원개발의 상징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Technip, JGC Corporation, Chyoda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Yamagaz도 그 일부에 참여하고 있음
 - * 상기 컨소시엄 참여 회사중 Technip은 러시아의 NOVATEK(80% 지분 소유)과 프랑스의 토탈(20% 지분 소유)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천연가스의 액화시설의 일관 건설을 제공하고 있음
- 향후 빅롤사는 향후 빅롤 바핀호 및 빅롤 뷰포트호 등 2척의 모듈 운송선을 추가 건조해 북극해 LNG 수송에 활용할 계획임
 - 향후 성능이 우수한 모듈 운송선의 잇단 투입으로 북극해 야말반도의 LNG 개발과 수송은 한층 더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됨

자료 : www.worldcargonews.com, 2016.6.26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

월마트, 모빌항 유통센터 개발로 걸프지역 해상 운송 전략 확대

-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올해 아시아-미주 간 2개의 해상 서비스 항로를 확보함에 따라 직기항이 가능해진 앨라배마주의 모빌항에 290만[㎡]의 수입 유통센터 개발을 고려
 - 제안된 모빌항의 유통센터는 휴스턴 외곽지역 유통센터(4백만[㎡])의 기능을 보완하고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월마트의 멀티 해상 전략 확대에 기여
- 월마트의 모빌항 유통센터에 지역 및 주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나 아직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로서 모빌의 잠재적 투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
 - 유통센터는 작년 적컨테이너 182,440TEU를 처리한 모빌 컨테이너 터미널 서쪽 15마일정도 떨어진 주 고속도로 10에 위치할 예정
 - 월마트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로 올해 말 모빌 및 인근지역에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기를 희망
 - 제안된 프로젝트 관련 소식은 시 및 자치주 정부가 차주 진행될 부지확보, 엔지니어링과 기타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투표 발표를 위한 공식 석상에서 유출됨
- 모빌항은 최근 2달 동안 2M(Maersk, MSC)의 아시아 항로와 Cosco China Shipping, 한진해운의 아시아 항로 공동 서비스 등 신규 해상 서비스 항로 유치
 - 모빌항은 CMA GCM과 Cosco China Shipping의 기존 아시아 서비스 항로를 포함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3개의 아시아 서비스 항로 확보
- 2005년 텍사스 Baytown에 오픈한 월마트의 수입 유통센터는 휴스턴항의 수입 컨테이너를 주로 취급, 휴스턴항은 지난해 12.8% 증가한 수입 적컨테이너 842,322TEU를 처리
 - Baytown의 유통센터는 초기 200만[㎡]의 규모였으나 이후 2배로 확장하였으며 월마트의 수입 유통센터는 LA, 시카고, 버지니아항, 서배너강 인근에 입지
 - 월마트는 2002년 미서안의 노동 협상 과정에서 항운노조원(ILWU)의 10일간 파업으로 인한 중단 이후 미동안 및 걸프지역, 캐나다의 항만으로 항만 활용을 확대해왔음
 -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물 중 걸프지역 항만에서 처리된 비중은 2.0%에서 2.5%로 상승, 증가된 대부분의 화물은 미서부 항만의 하역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휴스턴항으로 보내진 화물이었음
- 앨라배마주 항만청 CEO인 James K. Lyons는 월마트 유통센터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경우, 컨테이너 터미널을 활용하여 유통센터를 개발하려는 모빌항의 염원과 일치한다고 언급함

자료 : www.joc.com, 2016.6.20

이기열 전문연구원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중국 · 파키스탄 국제물류복합단지 프로젝트 착공

- 지난 6월 21일, 중국 신장자치구 타슈쿠르칸(塔什库尔干)에서 중국 · 파키스탄 국제물류복합단지(complex) 프로젝트 착공식이 개최됨
 - 중국 · 파키스탄 국제물류복합단지는 홍콩 성푸린(圣福林)그룹이 30억 위안을 투자해 건설하며, 건축 면적 약 61.8만 m², 계획 건설기간은 3년임
 - 동 단지는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, 스마트물류시스템, 국제 위안화 결제센터 등 3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상품 전시센터, 물류센터(일반창고 및 냉장 · 냉동창고), 조립가공센터, 세관 및 검사 · 검역센터, 자동차 서비스센터 등이 종합된 복합단지임
-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파키스탄, 아프가니스탄, 타지키스탄 등에서 수산물, 육류, 과일 등을 수입하여 중국 서북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며, 2020년 생산액 300억 위안과 5,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됨

자료 : www.snet.com.cn, 2016.6.27.

김세원 연구원
051-797-4775, ksw@kmi.re.kr

바니노 자유항 2021년까지 400억 루블 규모의 투자 이끌 계획

- 이달 24일에 있었던 하원의회에서 바니노가 블라디보스톡에 이어 자유항 지위를 얻게 됨
 - 바니노항은 극동지역 연해주 하바롭스크에서 약 547km 떨어진 곳에 인접하고 있음
 - 바니노 자유항이 상정됨에 따라 2021년까지 400억 루블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2,6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- 바니노 자유항은 극동 주요항만에 대한 자유항 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개정 안건과정에서 결정됨
 - 이후 사할린주, 캄차카지방, 추코트 자치구 등에 있는 항만에도 자유항 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임
- 자유항 제도는 자유항 입주기업에게 각종 세제혜택, 통관 간소화, 행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

자료 : www.portnews.ru 2016.5.31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

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6년 7월 11일(월), 14:00~18:00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 중회의실A(지하 2층)
- 주최 : 해양수산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- 주요 소개사업

시간	세션	대상 사업	대상 지역
14:10~15:50	제1세션	수산물 콜드체인 물류사업	중국, 러시아
16:00~18:00	제2세션	고성장 물류시장 진출사업	인도, 인도네시아 등

- 참가신청 : 2016년 7월 10일(일) 18:00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참가신청서를 이메일(joohye915@kmi.re.kr / ksw@kmi.re.kr)로 송부
- 참가문의 : 김주혜 연구원(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)
김세원 연구원(051-797-4775, ksw@kmi.re.kr)

※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『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』 참가신청서

- 일시 : 2016년 7월 11일(월), 14:00~18:00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 중회의실A(지하 2층)
- 주최 : 해양수산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회 사 명	
-------	--

참가자 1

성 명		직 위	
부 서 명		이 메 일	
전화(사무실)		전화(핸드폰)	

참가자 2

성 명		직 위	
부 서 명		이 메 일	
전화(사무실)		전화(핸드폰)	

▶ 참고 사항

- 신청인원 :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.
- 신청기한 : 2016.7.10.(일) 18:00까지 선착순 접수
- 접 수 처 : E-mail (joohye915@kmi.re.kr / ksw@kmi.re.kr)
- 문 의 :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.051-797-4779
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세원 연구원 Tel.051-797-4775
- 기 타 : 참가비 무료